

## 사무엘하 19장 31-39절 말씀

①

- 31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 
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 
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 
32 바르실래는 매우 늙어 나이가 팔십 세라  
그는 큰 부자이므로  
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

②

- 33 왕이 바르실래에게 이르되  
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 
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 
34 바르실래가 왕께 아뢰되  
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 
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 
35 내 나이가 이제 팔십 세라  
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 
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 
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 
36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 
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 
37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 
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 
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 
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 
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

③

- 38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 
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 
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

④

- 39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 
왕도 건너가서  
왕이 바르실래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 
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